頤齋 黃胤錫의 卜姓詩 연구*

이 은 주**

1. 서론
2. 복성시의 창작 배경
3. 복성시의 창작 양상
4. 복성시의 특징과 그 의미
5. 결론

1. 서론

黃胤錫(1729~1791)의 『頤齋亂藁』는 개인의 구체적인 일상을 세밀하고 방대하게 담아냈다는 자료적 특성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재난고』는 일상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자료는 한시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한시를 연구할 때 문집에 실린 한시를 주된 자료로 삼지만, 대개의 경우 이 시가 창작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특히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시가 아니라 작시 상황이 시의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평범한 戲作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재난고』에 수록된 시 가운데 첩을 구하는 과정에서[1] 쓴 시의

* 황윤석의 복성시로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규장각 이재난고 세미나팀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1) 황윤석의 복첩과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유영옥, 2008 「鄕儒 黃胤錫의 泮村 寄食과 卜妾」 『동양한문학연구』 27, 39-75면; 이성임, 2008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 現像과 經濟的 부담」 『고문서연구』 33, 319-345면; 이헌창, 2007 「18세기 황윤석가의 경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황윤석은 崔處翼(崔處益으로도 표기됨)이 시를 잘 쓴다는 전언을 듣고 예비 장인이 될 최처익에게 딸과의 혼인을 원한다는 내용을 '시'로 보내어 호감을 얻으려고 했다. 황윤석이 시를 보내면 최처익은 그때마다 수창시를 보내왔지만 막상 딸을 달라고 최처익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황윤석은 여러 차례 시를 보내면서 혼담이 성사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과정에서 쓴 일련의 시는 창작상황이 특수한 만큼 표현 방식이나 전고의 사용 등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황윤석의 시는 혼인을 청하는 청혼시(또는 구혼시)이지만, 전통적으로 볼 때 대개의 경우 혼사가 양쪽의 부모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혼인당사자인 남자가 상대측에 청혼시를 써서 보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첩을 구할 때는 어떤 상대를 선택할 것인지가 남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혼인을 청하는 시를 쓰게 된다면 그 전제는 수신인이 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반의 첩이 되는 여성은 기생만이 아니라 양반가의 서녀에서 관비까지 포함되므로[2] 이 경우에 청혼시의 수신인은 한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생으로 국한될 것이다.

그런데 황윤석의 시를 보면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황윤석의 시의 수신자는 혼인상대자인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아버지인데, 양반가의 서녀를 첩으로 맞으려는 경우, 현실적으로 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구혼을 승낙할 권한을 지닌 사람이 상대 여성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수신자가 남성이라면 구혼의 내용을 담으면서도 시의 수신자에게 애정을 토로할 수는 없으므로, 시의 메시지가 남녀가 주고받는 일반적인 애정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3] 이러한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고에서는 첩을 구하는 과정에서 쓴 시를 편의상 '卜姓詩'라고 지칭하였다. 황윤석의 이 시들을 따로 '복성시'로 구분한 이유는 첩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어진 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가

제생활」『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 이성임, 앞의 논문, 324면.

3) 박제가가 첩에 대해 지은 시가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룬 황윤석의 복성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박제가의 이 시에 대해서는 안대회의 「楚亭 朴齊家의 인간면모와 일상: 小室을 맞는 詩文을 중심으로」(2005『한국한문학연구』36, 117-150면) 참조.

혼인 요청이 목적이지만 수신인이 혼인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정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수신인에게 특화된 여러 시적 기교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첩을 구하기 위해서 지은 시이므로 성격상 미묘하고 은밀하게 의사를 타진해야 했다는 점이 황윤석만의 특징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명칭으로 다른 시들과 구분한다면 이후에 복성과 관련하여 쓴 시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때 그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4)]

복성시는 이렇게 혼사라는 특정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고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적지 않게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성취도라는 점에서 가볍게 치부되거나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다. 또 문집만 남아있는 경우 전후 맥락이 제거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들 중에서 복성시를 변별해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이재난고』에서는 복성시가 오고 가는 상황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성시에 해당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우선 황윤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황윤석의 복성시가 어떻게 제작되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2. 복성시의 창작 배경

황윤석이 처음으로 첩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은 장릉 참봉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1767년이었다. 참봉의 근무일수인 30개월을 채우면 승직할 수 있었고 이는 영월을 떠나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황윤석이 과거 시험을 치기

4)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편의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복성시'가 한시의 하위 갈래일 수 있는가, 또는 복성시 일반에 대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가 같은 문제들을 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황윤석이 첩을 구할 때 쓴 시'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상대 여성의 아버지를 위시한 남자 친척을 복성시의 수신인으로 설정한 것도 현재로서는 황윤석의 경우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 '복성시'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위해 서울로 갈 때는 주로 반촌의 단골 주인집에 머물렀으나, 서울에서 관료 생활을 지속한다면 혼자서 생활할 때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외지에서 생활할 때 해결해야 할 의식주 문제의 경우 영월에서는 莊陵의 노비들이 도와주었으므로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였다. 게다가 당시 황윤석의 아내는 병 때문에 어린 자식을 데리고 남편을 따라 이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5] 이러한 상황에서 영월 부사 鄭述祚는 황윤석에게 첩을 구하라고 조언하면서 "장릉의 노비들이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분명히 제 뜻 같지는 못했을 것이고 옷을 빨거나 꿰매는 일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남자가 벼슬살이를 할 때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째서 첩을 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6]

첩을 구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상황에서 황윤석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첩을 구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가 있다고는 해도 대외적으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격이 필요했고, 때로는 복첩 비용 같은 경제적인 지출도 감수해야 했다. 처음에 황윤석이 내세웠던 첩의 조건은 사대부의 소생이고 나이가 스물 남짓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7]

애초에 첩 구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황윤석이 염두에 두었던 사람은 정술조의 열다섯 살 난 서녀였던 것 같지만 혼담으로 진전되지는 못했다. 이후 서울에 올라와 의영고 봉사로 지내면서 다시 첩을 구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전 감찰 최처익의 서녀가 물망에 올랐다. 최처익은 황윤석과 이미 안면이 있던 사이로, 흥덕에 있을 때 최처익에 대해 舟巖 崔保鄕의 숙부로 언급한 바 있었고 실제로 만난 적도 있었다.[8] 황윤석은 1768년에 의영고 봉사로 있으면서 최처익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혼담 의사를 타진하였다.[9] 그러나 최감찰의 이웃에 사는 노파에

5) 『이재난고』 권8, 1767년 4월 19일(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

6) 『이재난고』 권8, 1767년 4월 19일.

7) 『이재난고』 권8, 1767년 4월 19일.

8) 『이재난고』 권4, 1764년 8월 2일 "高敞鄭都事卿臣及南原北倉村崔監察處益(來寓孝敬橋近處集洞)偶得相見, 崔監察卽故保卿之叔父也. 爲余云: '向日都政中, 得見尊丈入於副擬, 未得蒙點, 可慨矣.'"

게 최감찰의 서녀에 대해 탐문한 결과 나이가 열넷이고 외모도 괜찮고 집안일도 잘 하지만 서울 사람이 아니라 호남 사람들에게 결혼시킬 생각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10] 관상을 잘 본다는 판관 尹世英과 선전관 鄭弼臣마저 최처익의 딸이 나이가 열다섯이라 바느질과 언문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그 어미가 무당 같은 부류이므로 사대부의 별실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만류하면서 흥양 김상현의 서녀를 추천하였다. 이러한 조언으로 황윤석은 戚叔인 정언 安致宅, 정필신, 윤세영, 김상현을 통해 김상현에게 접촉해서 혼담을 추진하였다.[1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처익의 딸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집주인의 홀대에 지친 황윤석은[12] 최처익이 남원으로 내려갈 때 첩이 따라가지 않고 서울에 머문다면 그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고[13] 최감찰의 인척인 李上舍가 도움을 주는[14] 등 최처익의 딸을 얻을 가능성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최처익은 남원에서 五山 權世重의 서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9) 이성임의 논의(앞의 논문, 326면)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첩을 들이는 일은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단독으로 정하는 일이었고 양반가 서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서녀의 혼인에서 혼처를 물색하고 혼수를 지원하지만 혼인을 주관하지는 않았고 서녀의 어머니인 첩이 혼인을 주관하였다고 한다. 황윤석 역시 안면이 있었던 최처익에게 시와 편지를 보내 설득하였지만 결국 혼인은 최처익 첩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것 같다.

10)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11일 "遣下輩就樂峴屛門崔監察鄰家老嫗相親者, 探問則崔監察側生所養, 年今十四, 已成長矣. 亦有容有功, 不與京人議親, 將歸南中求對云."

11) 『이재난고』 권4, 1764년 8월 2일 "高敞鄭都事卿臣及南原北倉村崔監察處益(來寓孝敬橋近處集洞)偶得相見. 崔監察卽故保卿之叔父也, 爲余云: '向日都政中, 得見尊丈入於副擬, 未得蒙點, 可慨矣'."

12) 유영옥은 앞의 논문에서 황윤석이 반촌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첩을 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황윤석의 반촌 생활에 대해서는 유영옥의 앞의 논문 참조.

13) 『이재난고』 권13, 1769년 8월 26일 일기에는 최감찰이 남원으로 갔지만 그 첩과 노비는 여전히 남아서 집도 팔지 않는 것을 보면 따라서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이고 황윤석 자신도 반중 주인의 홀대로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 집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나중에 그 김에 서녀를 첩으로 맞이하게 되면 영구한 주인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4) 『이재난고』 권13, 1769년 10월 22일 일기에 이상사와 같은 가문인 李燧가 최감찰 첩의 前夫 소생을 첩으로 맞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재난고』 권15, 1770년 7월 10일 일기를 보면 이상사는 남원에 갔을 때 최감찰에게 황윤석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1769년 9월 즈음에는 최감찰의 아들이 죽어서 혼담을 상의할 겨를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혼담 이야기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그런데 흥양 김상현의 서녀를 구하는 일 역시 이전의 주변 인물들에게 들었을 때처럼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황윤석은 첩을 구하면서 이전처럼 확실한 조건을 내세울 수 없었다. 조건은 크게 후퇴되어 나이나 외모를 따지지 않고 여종 겸 집안일을 건사할 수 있는 첩이면 상관없다고[15] 했음에도 첩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황윤석이 기나긴 기다림 끝에 첩을 구하게 된 시점은 본처가 사망한 뒤인 1777년이었다. 고모의 소개로 담양 大秋里에 사는 俛仰亭 宋純의 후손인 宋日佐라는 사람의 누이를 소실로 맞이하였다.[16]

황윤석이 첩을 구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최처익에게 딸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련의 양상은 복성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황윤석은 최처익의 서녀를 첩으로 맞기 위해 최처익의 허락을 얻어내는 방편으로 시를 활용하고 있는데, 애초에 황윤석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처익이 무관이면서도 시를 잘 짓는다는 평판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혼하는 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개입하고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청혼시의 독자는 혼인 당사자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상대를 구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격에 맞는 상대를 찾아 합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녀의 혼담이기 때문에 애정 관련 고사가 동원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신자가 혼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 내용이 애정시와는 미묘하게 방향을 달리

15) 『이재난고』 권13, 1769년 8월 23일 일기 "或又卜姓, 不論年姿, 但得着實可信者, 雖非最少, 或逾二三十者亦不妨, 兼妾兼婢, 俾供衣食之役而已. 且京中閭閻婦女之貧者, 苟於針線飮食, 能精能潔, 則不獨可以供餽家長, 亦可因此生財. 如有依倚老母, 晩乃成婚者尤妙, 至於目前下計, 則不必專求童女, 況我年今四十一, 豈若取其老成者, 不至傷生之爲愈乎?"

16) 『이재난고』 권23, 1777년 9월 11일 「與宋君之玉書」. 이러한 선택에 대해 이성임의 앞의 논문(325면)에서는 황윤석이 신분적 콤플렉스가 심했기 때문에 명망가 출신의 첩을 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첩을 맞을 시점에 황윤석의 본처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황윤석이 왜 후처가 아니라 소실을 맞아들였는지는 의문이지만 대를 이을 적자가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재혼하지 않고 첩을 맞이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병규의 『호적』(2007 휴머니스트, 143면) 참조.

해야 했다.

이와 함께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의 의사를 타진하고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었다. 물론 혼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요건들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황윤석이 첩을 구하려던 가장 큰 이유가 의식주 문제였던 것처럼 최처익 역시 서녀를 조건이 맞는 상대에게 시집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혼사비용과 어떤 조건의 상대를 구할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서녀라고 해도 마흔인 황윤석에게 16세 딸을 시집보낸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 요소였다.[17] 혼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이 시점은 혼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보는 단계였기 때문에 복성시는 완곡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황윤석은 혼담을 떠보기 위해서 시를 보낼 때마다 '戲作'임을 표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희작'을 표방하겠지만 이 작품들은 대개 수신자에게 시의 성취도 보다는 다른 시적 장치들을 주목하도록 유도한다. 그 시적 장치는 참신하거나 세련된 시적 기교일 수도 있고 황윤석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황윤석은 최처익에게 혼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를 보낼 때 일정한 압운자를 일관되게 쓰면서 최처익에게 이 점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 또 앞뒤로 저는 '章'과 '姑'로 압운하여 모두 절구 여섯 수를 썼는데 어르신께서는 그 반만을 화답해주셨으니 어째서입니까. 객사를 비워놓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까,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반의 반에 불과하더라도 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18]

이들이 주고받은 시에서는 '章', '襄', '槍', '姑', '榆', '夫'가 고정적으로 압운자로 쓰이고 있는데 황윤석은 '章'과 '槍'을 통해 최처익의 시재와 무인적 풍모를, '姑'와 '夫'를 통해 혼인에 대한 암시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압운자에 특

17) 『이재난고』 권13, 1769년 10월 27일 "語及盛囑卜姓一事, 則彼果轉報于崔妾. 崔妾亦非無意者, 但言十六歲兒, 以付四十歲兩班, 似非輕易, 當報家長處置云矣."

18)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10일 "抑前後鄙詩章與姑, 共成六絶, 而惠酬只居其半, 何哉? 將有待於虛館歟? 將有待於入幕歟? 若然, 雖止半之半, 又何傷焉!"

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최처익의 시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황윤석의 압운자를 그대로 쓴 것 외에 최처익이 고른 압운자는 '憐', '知'였는데[19] 황윤석은 이 압운자로 최처익이 이 혼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했다. 결국 황윤석은 최처익에게 보내는 시의 小序에서 "보내주신 글은 점점 더 기이해지니 아마도 어려움을 만난 형세여서 그런 듯합니다. 생각건대 '憐'자를 압운자로 쓰시는 것을 보니 꼭 다시 시집보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지를 버리고 절벽으로 나아가니 옛날에 적군에게 응수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라고[20] 써 보냈다. 이 글의 내용은 최처익이 순순히 승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공의 수를 쓰겠다는 의미로 파악되는데 그 판단의 실마리를 운자 '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황윤석은 이 일련의 희작에서 여러 가지 시적 장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복성시의 목적이 완곡한 방식의 의사 표현과 설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현상의 특징과 전고의 활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3. 복성시의 창작 양상

황윤석이 최처익의 서녀를 혼처로 생각하게 된 데에는 주변인물 白季深(喆源/澈源), 尹德雨(聖若), 같은 곳에 머무는 察訪 張旭의 도움이 컸다. 특히 장욱은 최처익에게 서녀가 있다는 사실과 최처익이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공략하면 주효할 것이라고 귀띔을 한 적이 있었다.[21] 그래서 황윤석은 이전부터 최처익과 안면은 있었던 터라 안부를 묻는 것처럼 율시 한 수를 보냈다.

---

19)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7일 "崔監察又送四絶及憐字一絶, 並和余詩者也"; 1768년 9월 13일 "崔監察答'知'字一律送來."

20)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8일 〈再疊戲酬崔監察市隱座下都梁直所〉 "來詩愈出愈奇, 蓋遇險之勢然也. 惟憐字步濶, 不必更售. 故不佞亦且棄平地趍絶壁, 如古應兵之爲耳."

21)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5일 "日前張察訪旭來言: '彼固喜詩, 矧側生端秀人, 而求之輒見, 却若因其所喜而試之, 則幾矣.'" 장욱은 狂草로 유명한 당나라의 서예가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황윤석이 장욱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俾草聖揮洒報章如何"처럼 서술하기도 했다.

天涯俱是未歸身	먼 타향에서 둘 다 돌아가지 못한 신세
前度今來意轉親	예전의 그 사람을 지금 보니 더욱 친근할 것입니다.
自笑迂儒還庫士	물정 모르는 유자에 창고지기라고 자조합니다만,
誰知老將亦詩人	노장께서 또한 시인인 줄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十年白雪元同調	십년이 되어도 백설곡은 원래와 같은 곡조건만
九日黃花最勝因	중구일은 노란 국화가 가장 만발한 이유입니다.
莫把明珠輕抵鵲	구슬을 쉽게 까치에게 가져다주지 마시길
市南無處不沙塵	저자 남쪽에는 어딘들 먼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22]

2일에 시를 보내고 나서 4일에 최처익의 화답시를 받았지만 기대했던 내용은 없었다. 황윤석은 시에 쓴 전고를 통해서 자신이 숨겨놓은 의도를 최처익이 눈치 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황윤석은 시에 녹여 낸 자신의 의도가 지나치게 은밀하게 처리되고 있어서 최처익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다소 노골적으로 혼담을 연상할 만한 단어들을 제시하여 절구 2수를 보냈다.

또 시와 함께 짧은 글을 덧붙였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여기에서 자신의 주변 인물인 백계심과 윤덕우, 장욱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23] 눈여겨 볼만하다. 왜냐하면 혼담의 성사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변 인물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 이후에 황윤석이 최처익에게서 記室이 吳正朝라는 것을 알아낸 뒤 오정조가 백계심, 장욱과 만나고 이들을 통해 황윤석이 최처익의 상황이나 의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황윤석은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인물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그런데 이는 달리 보면 주변인물의 전언과 평판, 나아가 소문에 기대어 일이 성사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첩으로 삼기에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결국 상대 집안에서 황윤석을 흔쾌하게 받아줄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고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이상 이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호하게 처리되는 의사소

22)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2일 〈戲寄崔監察處翼〉.

23)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4일 〈戲酬崔監察二絶市隱旅次〉 "昨逢白尹二友, 微聞有和, 今果入手, 何其幸也. 雨窓無俚, 更獻兩絶, 一粲之餘, 俾草聖揮洒報章如何. 往復和好, 亦經世一大緣法耳(張察訪旭與之同舍故及之)."

통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 주변의 인물들이 소문을 전하거나 상황을 탐색하였던 것이다.

崔翁六十錦成章　　예순의 최옹께선 멋진 시를 쓰시니
知有天機藉七襄　　천기가 직녀성에서 나오는 걸 아시겠지요.
至竟仙槎然泛漢　　신선의 배 타고 은하수로 가면
相邀且舞綠沉槍　　녹침창 들고 맞이하며 춤을 추겠지요.

黃郞天上卽黃姑　　황랑은 천상의 견우성으로
歷歷晴川近白楡　　뚜렷한 청천은 별과 가깝습니다.
入夜瓠樽圓月好　　밤 되어 술 마시고 보름달도 좋으니
世人方解有仙夫　　세인들은 그제야 신선의 존재를 알아주는군요.[24]
[自註 : '청천'은 〈황학루〉 시에서 가져온 것이다.][25]

당초에 황윤석이 고민했던 부분은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느 수위까지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였던 것 같다. 때문에 초반에 황윤석은 최처익이 시를 잘 쓴다는 전언에 따라 완곡한 전고를 활용했지만 최처익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자 전고를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럼에도 5일에 최처익이 보내 온 화창시를 보고 그가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의도가 어떻게 시 구절에 숨겨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전 시에 "前度今來" 네 글자를 써서 은밀하게[26] '郞'자를 유도했고 '因'이라는 한 글자로 또 '姻' 의미를 덧붙였다. 이는 마치 유우석이 〈죽지사〉에서 "동쪽에선 해가 돋고 서쪽에선 비가 오니, 개지 않았다고 하는데 개인 곳도 있구나(東邊日出西邊雨, 道是無情還有情)"라고 했을 때 '情'자는 실제로 '晴'자를 차용한 것과 같다. 옛날에 "곤산의 아래에서 사람들은 옥덩이를 까치의 먹이로 준다"고 했고 王世貞도 "명주를 까치에게 가져다준다(明珠抵鵲)"라고 했는데 의미가 바뀌어 속인

24)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4일 〈戲酬崔監察二絶市隱旅次〉.
25) "晴川出黃鶴樓詩."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이재난고』에서는 '晴'으로 탈초했으나 본고에서는 '暗'으로 보고 '은밀하다'는 의미로 읽었다.

들과 비교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 같다. 내 경우에는 손 안의 물건을 여러 사윗감에게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었고 뒤의 시에서는 '成章'이라는 단어에서 차츰차츰 전개해 갔다. '翁', '郞' 두 글자의 경우에도 또한 너무 노골적인 것만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어째서 이를 살피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여 적막할 때 웃음거리로 삼고자 하니 이 또한 「國風」의 '여색을 좋아하나 난잡하지 않은(好色不淫)' 뜻일 것이다.[27]

위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보낸 율시에서 황윤석은 "前度今來" 구절을 보면 최처익이 劉禹錫이 쓴 〈再游玄都觀〉의 "예전의 劉郞이 이제 또 돌아왔네(前度劉郞今又來)"를 연상하고 "郞"을 숨겨놓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황윤석이 이렇게 핵심 단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전고를 활용하는 것은 "문에 이르러 시가 더욱 아름다워지니, 낮게 부르든 높게 읊든 상관 없네(至到當關詩轉豔, 不妨低唱又高吟)"에서도[28] 나타난다. 시의 자주에는 李商隱 시의[29] "문지기가 새벽 손님을 주인께 알리지 않은 것은(當關莫報侵晨客)"을 언급하고 있는데 황윤석이 이 시를 인용한 진정한 이유는 자주에 언급한 구절 다음 부분에 "막수라는 예쁜 아가씨를 새로 들였기 때문이라(新得佳人字莫愁)"가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곧 최처익의 딸을 염두에 둔 구절이 핵심이지만 이 구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전고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막수'는 다시 이상은의 〈無題〉 시에서 '莫愁堂'으로 연결되어[30] "여신의 삶은 원래 봄이건만, 아가씨 사는 곳에는 원래 남자가 없었다네(女神生涯原是夢, 小姑居處本無郞)"를 이끌어낸다. 자주에서 〈청고소계가〉를 언급한 것도 "아가씨는 거처에서 남자 없이 혼자 있네(小姑所居, 獨處無郞)"로 달리 혼처가 없다면 자신과 혼인시키는 것이 어떤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

27)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5일 "故余前詩, '前度今來'四字, 暗鉤'郞'字, '因'之一字, 又貼'姻'字. 如劉禹錫竹枝詞, '東邊日出西邊雨, 道是無情還有情', '情'字實借'晴'字也. 古云: '崑山之下, 其人以玉抵鵲', 而王元美乃云: '明珠抵鵲', 蓋轉語以喩不當與俗輩相較耳. 余則以喩不當以掌上物輕畀凡壻, 而後詩又因'成章'一語, 駸駸深造, 至於'翁''郞'二字, 又不翅太洩矣. 奈彼莫之省何! 姑幷記此, 以發寂寥一笑, 亦國風'好色不淫'之意云."

28)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5일 〈又步二律〉 제2수.

29) 이상은의 시 〈當平少侯〉의 제7, 8구이다.

30) 이 시의 수련은 "重帷深下莫愁堂, 臥後淸宵細細長"이다.

“因”과 “姻”의 관계는 유우석의 시에서 “情”과 “晴”을 雙關의 의미로 사용한 예를 빌어 왔는데 그렇게 하면 “九日黃花最勝因” 구절은 노란 국화가 중구일이기 ‘때문에’ 가장 만발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노란 국화 피는 중구일이 ‘혼인하기에’ 가장 좋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련의 “明珠抵鵲”은 전통적인 표현을 빌려오되 원래의 의미와 다른 의도로[31] 썼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는 중반까지 자신은 의영고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무인이지만 시적 교양을 갖추었다는 점을 예의를 갖추어 강조하면서 상대에게 안부를 묻는 평범한 시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련에서 유도한 ‘郞’이 함련에서 의영고 참봉으로 있는 자신으로 이어지며 경련에서는 다소 부자연스럽게 쓴 ‘因’에서 ‘姻’을 환기하기를 바라면서 신중하게 사윗감을 고르라는 메시지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낸 절구 두 수에 대해 ‘崔翁’, ‘黃郞’처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과 기구의 ‘成章’에서 내용이 점차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翁’과 ‘郞’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장인과 사위 관계로 읽어야 한다는 것은 이 두 수가 견우와 직녀 고사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사는 “錦成章”를 통해 표면화되는데, 최처익이 비단처럼 멋진 시를 쓴다는 것을 표현한 “錦成章”이 축자적으로는 비단 무늬를 이룬다는 뜻이지만 이와 함께 『시경』〈大東〉의 “일곱 번이나 베틀에 오르면서도 무늬 놓은 비단을 짜지 못한다(雖則七襄, 不成報章)” 구절을 환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베를 짜는 직녀를 연상하도록 한다.

첫째 수의 ‘최옹-직녀의 아버지’ 구도는 둘째 수에서 ‘황랑-견우’와 대응되도록 대칭적으로 구성하였다. 승구의 “歷歷晴川近白榆”는 自註에 따라 〈黃鶴樓〉의 “맑은 냇가에 한양 땅의 나무들이 뚜렷이 보이네(晴川歷歷漢陽樹)”와 〈隴西行〉의 “하늘 위에 무엇이 있나, 가지런히 백유가 심어져 있네(天上何所有, 歷歷種白榆)”를 겹쳐서 ‘晴川’은 은하수를, ‘白榆’는 별을 뜻하지만 동시에 한양에 있는

31) 北齊 劉晝의 『新論』「辯施」에 나오는 구절이다. “昆山之下, 以玉抵鳥. 彭蠡之濱, 以魚食犬, 而人不愛者, 非性輕財, 所豊故也.” 원텍스트에서는 옥도 새에게 먹일 정도로 풍족하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직녀 가까이에 있다는 뜻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수의 전구와 결구에서 신선의 배를 타고 가면 녹침창을 들고 맞이할 것이라는 표현은 둘째 수의 결구에서 자신을 '仙夫'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과 이어진다. 황윤석은 이후의 시에서도 '녹침창' 같이 여러 종류의 창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최처익이 무관 출신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위의 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郞'을 시 구절에 숨기는 방식을 택했다면 고사에 은밀하게 숨기는 방법도 있다. 9월 5일에 황윤석은 다시 최처익에게 만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小序와 7수의 수창시를 보냈다.

長庚何獨遇知章　　어찌 이백만 하지장의 지우를 입었을까요?
南國風流最沔襄　　남국의 풍류는 襄陽의 漢沔 지역이 최고입니다.
玉作明暉將有贈　　옥으로 만든 명휘를 장차 주신다면
梨花不用十年槍　　십년 된 이화창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32]
[自註: 주평 승언과 공명은 모두 양양 한면 사람이다. 황승언과 제갈공명은 또한 옹서 관계이다. 暉는 거문고인데 徽의 古通字이다. 楊妙眞은 '이십 년 된 이화창'[33] 이라고 하였다.][34]

이 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구혼'이지만 사윗감을 고른다는 것은 '知人之鑑'에 해당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황윤석은 이 시에서 두 가지 고사를 끌어왔다. 하나는 賀知章이 〈蜀道難〉을 읽고 나서 이백을 '謫仙'이라고 부르면서 현종에게 추천했다는 고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주에서 명시한 것처럼 襄陽 漢沔의 풍류는 黃承彥과 諸葛孔明을 가리키고 있으며 황승언이 자신을 딸이 어떠냐고 제안하자 제갈공명이 이를 받아들여 아내로 삼았다는 고사이다.

이 두 고사는 모두 사람을 알아보는 감식안에 대한 것이지만 각각의 고사는 초점이 다르다. 첫 번째 고사에서 핵심은 하지장이 이백을 두고 '謫仙'이라고 찬

32)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5일 〈戲酬崔監察七首-梨翁座下龜生直中〉 중 제1수.

33) 『송사』 「李全傳」에 이전의 아내인 양묘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금에 반대하여 군대를 일으킨 여수령 양묘진이 이화창법에 매우 능했는데 "이십년 간 연마한 이화창이라 천하에 적수가 없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한다.

34) "州平承彥孔明, 並襄陽漢沔人. 黃葛又翁婿也. 暉琴, 徽古通. 楊妙眞云, 二十年梨花槍."

탄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고사에서는 "최고의 풍류"는 옹서관계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이 두 고사의 연결점은 '지우'라는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복성시에서 황윤석은 일관되게 자신을 '仙'으로 지칭했다는 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황윤석은 핵심적인 메시지의 경우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숨겨놓고 있어서 自註가 없다면 '沔襄의 풍류'가 옹서지간인 황승언과 제갈공명을 쉽게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어 "옥으로 만든 명휘"는 앞의 시에서 "明珠"였던 최처익의 딸을 "玉"으로 잇고 있으며 "명휘"는 황윤석이 거문고라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금슬을, 따라서 "딸을 나와 결혼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다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성시는 일종의 수수께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의 의도나 시에 감춰진 메시지는 여러 차례 음미하면서 해석하여야 하는데, 황윤석은 자신이 보낸 시를 『이재난고』에 기록하면서 시 구절의 의도를 명시한 自註를 달아놓고 있지만 실제로 최처익에게 시를 보냈을 때 메시지를 은밀하게 숨긴 시를 쓰면서 한편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주라는 단서를 제공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복성시를 보내는 상황 자체가 구혼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만큼 특정 단어나 전고를 문면에 표출하지 않는 일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황윤석은 분명히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숨겨야 할 사적인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 시를 함께 보면서 이 상황을 협의해나갈 주변인물의 존재였다. 때문에 황윤석은 "잘 보는 사람에게 보게 하시길 바란"[35]다고 하는 등 시에 감추어둔 메시지를 최처익이 주변 인물들과 상의하여 읽어낼 수 있기를 희망했고,[36]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전고를 활용하고 이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그 교양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최처익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5)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8일 〈再疊戲酬崔監察市隱座下都梁直所〉 "願令善覘者覘之, 不然古所謂'歲云秋矣, 我落其實.'者, 左右將或無辭於此, 而爭端息矣, 和事諧矣."

36)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5일 〈戲酬崔監察七首-梨翁座下龜生直中〉 "來詩草法可愛, 未知老將軍書佐爲誰, 願聞其名"; 1768년 9월 7일 "崔監察又送四絶及憐字一絶, 並和余詩者也. 其筆則靈光武弁吳正朝所倩云."

최처익이 승낙한다는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변 인물들을 통해 본격적인 혼담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작시 상황을 고려할 때 복성시의 특징적인 측면은 시의 수신인에 대한 찬사와 혼인의 암시적 표현, 주변 인물들에게서 들은 상대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찬양하고 자신이 사윗감으로 괜찮다는 점을 어필하여 상대로부터 호감을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때 황윤석의 경우 "相邀且舞綠沉槍", "梨花不用十年槍" 등으로 최처익이 무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호감을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槍'을 압운자로 사용하고 무인과 관련된 단어를 최대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 혼인이 가능하고 적절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誰言鳳翼自珍章	누가 말했던가, 장봉익의 글에서는
未解神雲趍楚襄	신녀의 구름이 초 양왕을 따라간 것을 몰랐다고.
一線且憑傳茗手	실낱같이 또 차 전하는 사람을 통하려는데
逢場喜氣幾新槍	만나보니 새로운 가지가 몇 개 돋았는지 기쁜 기색이네.[37]

[自註: 명나라의 張鳳翼은 〈高唐賦〉를 해석하면서 襄王을 宋玉으로 바꿔야 하며 그러면 송옥의 꿈이지 양왕의 꿈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찰방 때문에 말한 것이다. 차에는 一旗(잎) 一槍(가지)이라는 명칭이 있다.][38]

이 시 창작에서 포인트는 최처익의 딸을 추천한 찰방 장욱이 암시적으로 전해준 이야기를 시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장욱의 존재는 이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반부에서는 대표적인 애정 고사인 巫山夢의 해석과 관련시켰다. 무산몽의 원텍스트인 宋玉의 〈高唐賦〉와 〈神女賦〉에서는 양왕과 무산 신녀의 애정담을 다루고 있으나 신녀의 꿈을 꾼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송대 沈括은 신녀의 꿈을 꾼 사람은 송옥이라고 해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39] 그러나 황윤석은 심괄이 아니라 장씨라는 연결점을 통해 명대 인물 장봉익이 양왕과 신녀의 애정담을 송옥과 신녀의 애정담

37)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5일 〈戲酬崔監察七首-梨翁座下龜生直中〉 중 제3수.

38) "皇明張鳳翼解高唐賦以襄王改作宋玉, 乃玉夢非王夢, 此爲張察訪言之. 茶有一旗一槍之號."

39) 沈括, 『補筆談』 "自古言楚襄王與神女遇, 以楚辭考之, 似未然. '其夜王寢, 夢與神女遇'者, 王字乃玉字耳. 其夜夢神女者宋玉也, 襄王無預焉, 從來枉長其各耳."

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을 가져왔고 이것을 현재 장욱이 자신과 '옥'으로 지칭되는 최처익의 딸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과 대응시켰다.

곧 이 1, 2구가 최처익의 딸과 자신의 혼담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매인으로서 장욱의 역할을 소개한 것이라면, 3, 4구에서는 지금 장욱이 자신에게 전한 메시지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만나보니 새로운 가지가 몇 개 돋았는지 기쁜 기색"이라는 제4구에서 기쁜 기색은 최처익의 반응을 암시한 것이며 그동안 최처익을 의미했던 '槍'은 차나무의 가지를 지칭하는 같은 단어로 쓰였으므로 이 시에서 황윤석은 최처익에게 장욱이 전해준 희망적인 메시지가 정말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다음 시에서 황윤석은 혼인과 관련된 전고를 좀 더 다양한 자료에서 끌어왔다.

有情仙界亦翁姑	인간세계처럼 선계에도 시부모가 있어
夜夜河魁爲落楡	밤마다 하괴성에선 느릅나무 열매를 떨어뜨리네.
人靜長橋二十四	인적 고요한 긴 이십사교
試敎金犢引玄夫	소 수레에게 죽은 이를 데려 오라고 할까[40]

[自註: 杜牧의 시 "二十四橋明月夜"는 양주에 근거하여 말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한성도 또한 예전에는 양주땅이었다. 그래서 월산대군의 『풍월정집』에 이미 두목의 시구를 쓴 바 있다. '金犢'은 崔少府의 딸이 올라온 고사를 썼다.][41]

시 옆의 주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2구는 『參同契』 주석을 가져왔고 제3구는 두목의 시 〈寄揚州韓綽判官〉 구절을, 제4구는 『搜神記』에 나오는 '盧充幽婚'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1, 2구에서는 혼인에서 가장 금기이자 살기를 나타내는 '天罡', '河魁'으로 혼담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면서 이 혼담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를 '翁姑'에서 찾고 있다. 일련의 시에서 '仙'이 황윤석 자신을 지칭했고 '翁姑'가 시부모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부모가 이 혼담이 성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복성'이라는 성격상 자신이 첩을 구하고 있는

40)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5일 〈戲酬崔監察七首-梨翁座下龜生直中〉 중 제4수. 주석은 "道家有魁罡法, 叅同契註, 河魁直二月而楡莢落"이다.

41) "杜牧詩'二十四橋明月夜', 蓋據楊州而言. 我國漢城, 亦舊楊州地. 故月山大君風月亭集已引杜語. 金犢用崔少府女上已故事."

상황이고 혼담을 수락하는 당사자가 최처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표현은 딸을 첩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시를 보냈는데도 최처익과 첩이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것처럼 보인다.

3, 4구는 지명의 동일성을 매개로 중국의 양주에서 우리나라의 양주를 연상하여 서울에 있는 자신과 함께 두목의 시구 "이십사교 달 밝은 밤에, 어느 곳에서 옥인이 피리를 불게 했나(二十四橋明月夜, 玉人何處敎吹簫)"를 상기시킴으로써 '玉人'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제4구는 세주로 언급했듯이 『수신기』에 나오는 노충의 冥婚談으로, 이 이야기에서 최소부가 노충을 불러 딸을 결혼시키고 집에 돌아온 뒤에 노충은 최소부가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수신기』의 이 이야기는 최소부가 최처익과 같은 성씨였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소 수레에게 죽은 이를 데려 오라고 한다"는 이 구절은 노충이 죽은 최소부의 딸과 결혼한 지 4년 뒤에 물에서 소 수레가 나왔고 그 수레에 최소부의 딸과 어린아이, 최소부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최소부가 노충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냈듯이 이 시에서 드러내는 메시지도 최처익에게 딸을 달라는 것이었다.

앞서 황윤석은 혼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처익의 딸에게 특별한 혼처가 없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는데 이와 함께 혼인하려는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

除是空空始淨身	어쨌든 어리석은 저는 이제야 몸을 깨끗이 하고
隨緣南北直須親	인연을 따라 남과 북에서 그저 가족 될 이를 구합니다.
寰中詎幾無雙士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林下猶難不及人	시골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못한 이도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意健自堪成一對	한 쌍을 이루려는 마음 굳건하니
神淸已得閱三因	맑은 정신으로 이미 三因을 겪었습니다.
相將白首歸來未	머지않아 늙어서 돌아가게 되면
犁雨簑風願躡塵	따라가서 비바람에 도롱이 입고 소 끌고자 합니다.[42]

[自註: 3, 4구 또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 빗대었다.][43]

[自註: 힘써 농사를 짓는 사람을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였다.][44]

42)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5일 〈又步二律〉 중 제1수.

43) "三四亦姓料."

이 시는 제1, 2구에서 자신이 혼처를 구하고 있다는 것, 3, 4구에서는 자주에서 언급한 대로 같은 성을 지닌 인물을 통해서 자신이 사위로 적합한 인물임을 보여주었다. “뛰어난 사람(無雙士)”은 직접적으로 후한의 黃香을 지칭한 것으로 효성으로 이름나고 경전에 박학하여 “천하에 둘도 없는 강하의 황동(天下無雙, 江夏黃童)”이라고 불렸던 점을 가리키고 있다. 황향과 황윤석이 같은 성씨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다면, 제5, 6구에서는 혼인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굳건하다는 점과 함께 같은 발음에 근거하여 “三因”에서 “三姻”, 곧 唐伯虎와 만났을 때 秋香이 세 차례나 웃음으로 답하여 그 인연으로 추향을 첩으로 맞아들였다는 ‘三笑姻緣’으로 읽을 수 있다. 제7, 8구는 최처익이 내건 조건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는데, 농사짓는 사람을 원한다는 표현을 최처익은 서울 사람이 아니라 호남에 가서 상대를 구한다는 의도로 썼겠지만 황윤석은 당장 서울을 비롯한 타지의 관료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첩을 구하는 상황이었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굳이 첩을 얻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최처익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앞에 “늙어서 돌아가게 된다면”을 덧붙이고 있다.

처음에 황윤석은 최처익이 시를 좋아하는 무인이라면 시로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래서 시에 숨긴 메시지를 파악하기만 한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잘 보는 사람에게 보게 하면” 일을 그르치지 않고 혼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최처익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좀처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 가 서울로 옮겨온 뒤 이렇게 어울릴 만한 한 두 사람의 문인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집사께서는 문무를 겸비하시고 거듭 인척관계라는 좋은 인연을 맺을 일이 있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드렸사오니 끝없이 이야기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깊이 살펴주시지 않는다면 이제 그만 해야겠습니다. 시를 생각하면 실소가 나오니[45] 혹 이 또한 받아들여주시면 이렇게 시를 주고받은 것 또한 중매인이 없는 옥은 아닐 것입니다. 무자년 小重陽(9월 10일) 산뢰거사 씀[46]

44) “聞求力田者故云.”

45) 『北夢瑣言』에 소동파가 “文與可가 나의 ‘料得淸貧饞太守 渭川千畝在胸中’ 시를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입 안에 든 밥알이 상 위에 가득 뿜어 나왔다고 한다”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 최근의 일은 감히 자랑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로 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흔쾌히 허락해주시니 어찌 알아주신 데에 대한 감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항복의 깃발이 세워졌으니 혼담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여러 개의 '筅'과 '鉤' 있는 이상 '六搶'으로 끝나지 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역정을 내신다면 어찌 다시 북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또한 소용이 없을 것이니 한 마디 말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山海盟成衆亦知	굳건한 맹세 이룸은 다들 알고 있으니
靈犀一點幾篇詩	의기투합하여 서로 몇 편의 시가 오갔나요.
翁言繫牝方求牡	옹께선 암컷으로 수컷을 구하시고
郎意將雄早誘雌	저는 수컷으로 암컷을 유혹하려 합니다.
不是天緣踈豈密	천정의 연분이 아니라면 먼 사이가 어찌 가까워지겠습니까.
從今人事唱須隨	지금부터 일은 부르면 따를 일입니다.
叮嚀好約雙圓夕	좋은 언약에 원만하기 그지없는 저녁 무렵
拍拍春懷更覺寄	가득한 봄 회포를 또 다시 부칩니다.[47]

어제 과거시험장에서 나왔더니 시 절구 세 수가 이미 서안에 있었습니다. "繫牝而求牡", "盟成而凱旋"이라고 하였으니 노장군이 쓰신 생각이 깊고 부친 뜻이 두터웠습니다. 어찌 백면서생이라고 생각에 생각을 쓰지 않고 뜻에 뜻을 부칠 줄 몰랐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현 상황으로 말해보면 생각했던 계획이 이미 드러났고 뜻은 더욱 절박하여 한 마디로 어르신께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은 시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姑'자 절구 세 수를 보내주시어 마침 받아보았는데 깊게 살피신 것 같아서 정이 있음이 심하다고 한 것입니다. 장군이 나를 아끼시니 지금부터라도 명을 받들려고 하는데 정이 있으면서 없는 듯하고 말하면서 말하지 않은 듯하니 어찌 천하 장부의 일이 이러하겠습니까.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또한 장군을 따라 친족의 의리를 맺고자 합니다. 또 앞뒤로 저는 "章"과 "姑"로 모두 절구 여섯 수를 썼는데 어르신께서는 그 반만을 화답해주셨으니 어째서입니까. 장차 관사를 비워놓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반의 반에 불과하더라도 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 이 필법은 실로 달이 솟고 바람이 부니 記室(오정조-인용자)이 다시 백계심을 만난 것

46)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8일 "一自遷來都下, 豈無一二詞人可與如此? 惟執事旣武旣文, 重有相嫌之好, 傾倒困廩, 不翅更僕. 若猶不許深省, 斯可休矣. 想詩到噴飯, 或亦因令開納, 則此往復, 必非無媒之玉也. 戊子小重陽山雷居士藁."

47) 『이재난고』 권11, 1768년 9월 10일 〈戲酬崔監察-淸河旅次江夏敬復〉 "比日之事, 非敢自夸, 實有所爲而爲耳. 乃蒙快諾, 豈勝知感! 降幡已竪, 媾且成矣. 不然, 卽自有千筅萬鉤, 不翅六搶而已. 翁若慍時, 能復一鼓否? 恐涕出亦無益, 請試一言決之."

이 아닙니까. 계심이 내 마음을 알고 장욱에게 물어보아 이에 알게 되었으니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운장 소은이 절합니다.[48]

㉮는 『이재난고』에서는 9월 8일 일기에 수록되어 있지만 "小重陽"은 중양절 다음날인 9월 10일을 가리키는 단어이므로 단순한 실수로 8일에 쓴 것인지 10일에 쓴 것을 8일에 잘못 넣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최처익이 문무를 겸비했다는 찬사와 함께 혼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그동안 시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중매인이 없는 옥은 아닐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서녀를 첩으로 맞고 싶기 때문에 중매인을 개입시키는 정식 혼인의 의례를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시를 통해 중매인을 대신하는 최소한의 예를 갖추었으므로 이 점을 생각해 달라는 요청으로 읽을 수 있다.

㉯의 시와 편지를 보면 황윤석이 혼담에 대해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에 최처익이 확실히 긍정적인 회신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최처익이 보낸 시의 "繫牝而求牡", "盟成而凱旋"은 분명히 허락한다는 의사 표시이며 이것으로 본격적으로 혼담을 넣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황윤석은 최처익의 기실 오정조와 자신의 혼담을 도울 백계심과 장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처익이 긍정적인 답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처익의 서녀를 첩으로 맞이하려던 황윤석의 시도는 무위로 끝났다. 그렇지만 복성시 자체로만 보면 황윤석은 다양한 시적 전략을 통해 상대방의 허락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시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희작이라는 측면에서 복성시의 특징적인 양상과 그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48) "昨日出自場中, 盛詩章字三絶, 先已留案, 有曰:'繫牝而求牡', 有曰:'盟成而凱旋', 老將軍於此用計深, 寄意厚矣. 安知白面書生, 獨不能用計於計上·寄意於意中耶. 雖然, 自今言之, 計已透露, 意益切至, 所以一言, 請決於左右也. 此詩旣成, 方將馳上, 而所示姑字三絶, 適又入手, 旣許深省, 因稱有情甚矣. 將軍之愛我也, 從今以往, 謹當惟命, 夫有情而若無情, 似說而若不說, 豈天下丈夫事耶? 不佞雖劣, 亦願從將軍結義也. 抑前後鄙詩, 章與姑共成六絶, 而惠酬只居其半, 何哉? 將有待於虛館歟? 將有待於入幕歟? 若然, 雖止半之半, 又何傷焉? 且玆筆法, 實有月出風韻, 無乃記室, 復得白季深耶? 季深知我心, 問諸三孟草聖, 斯可知之. 如何如何? 卽旋. 雲莊小隱拜."

4. 복성시의 특징과 그 의미

황윤석은 첩을 얻기 위해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복성시'를 보냈는데, 본 장절에서는 이 복성시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복성시는 구혼을 하되 혼인 당사자가 아니라 예비 장인을 수신인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구체적인 시 텍스트에서는 애정시와는 구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예비 장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는 애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수식으로 호감을 얻어내고 혼인에 대한 자신의 굳은 의지나 상대의 딸이 혼인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또 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탐문하고 혼담을 넣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황윤석의 이 일련의 복성시는 그 전에 최처익에게 넌지시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서 발송된 것이었다. 황윤석은 최처익이 시 짓기에 흥미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시적 교양을 보여줌으로써 호감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혼인 승낙을 받고자 했다.

황윤석이 자신의 시적 교양을 드러내는 방식은 복성시에서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완곡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황윤석은 고도로 압축적이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전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무인인 상대에 대한 칭찬, 상대의 딸에 대한 언급, 괜찮은 사윗감을 알아보는 장인의 감식안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또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언어유희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점도 특기할 수 있다. 같은 지명, 같은 성씨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최대한 다양한 전고를 끌어오는 점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어떤 주제를 전달한다는 점에 중점이 놓이고 그것을 함축적인 매개체인 '시'로 전달함으로써 황윤석은 시에서 사용될 법한 표현과 전고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이 시들이 종래의 문학적 관점에서 높게 평가하는 시적 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희작'은 문학적으로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농담처럼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시에서 사용되는 기교들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황윤석의 복성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시의 발신자는 메시지를 '숨기고' 수신자는 이를 '발견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황윤석은 최처익의 딸을 자신의 첩으로 달라고 하고 싶지만 전할 수 있는 것은 혼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시를 보고 구체적인 맥락을 알아차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혼인을 암시하는 단어를 쓰거나 애정 전고를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는 최처익의 서녀를 자신이 첩으로 맞고 싶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희작'임을 표방하면서 전하고 싶은 또는 확인하고 싶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어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 놓았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핵심적인 구절을 숨겨두고 앞뒤의 구절을 가져와서 전고로 쓰는 방식이었다. 또 같은 성씨나 지명 등으로 연상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황윤석은 혼처가 없다면 자신은 어떤지를 묻기 위해 적적하게 집에 있는 "莫愁女"나 괜찮은 자질의 사위를 알아본 인물들의 전고를 쓰면서도 이를 문면에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시적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남녀 간의 애정, 괜찮은 사윗감을 알아보는 감식안이나 知遇의 문제, 한양이라는 지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을 지칭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을 시 전체에 모자이크의 형태로 숨겨 놓고 있는 것이다. 황윤석의 복성시에서 희작의 속성은 장난삼아 떠보면서 결코 무겁지 않게 의사를 타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가 보낸 시의 메시지를 다양한 전고와 시적 기교 속에서 찾아내는 과정 그 자체에서 발현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결국 이 시는 혼담 요청을 승낙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상대를 설득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에 수신자의 호감을 얻을 만한 요소들을 포함시키게 되는데, 황윤석의 경우에는 최처익이 무인이면서 시도 잘 짓는다는 찬사를 늘어놓거나 무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槍'을 운자로 쓰는 등 무기나 병법처럼 무인에게 친근한 단어들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수신자에 대한 최대한의 찬사와 함께 황윤석은 긍정적인 답신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상대의 요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을 썼다. 또

혼사를 기정사실화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거나 무산의 신녀와 송옥을 연결시켜 현재 상황과 대응시킴으로써 혼인할 연분이 있다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했다.

희작으로서 복성시가 갖는 의미는 어떤 메시지를 시에 숨겨서 전달한다는 전제가 있는 이상 시적 기교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학다식"한 황윤석은 '복성'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처익에게 보내는 일련의 시에서 혼인과 애정, 감식안에 대한 다양한 전고를 가져왔고 특정한 압운자를 반복해서 쓰는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시적 기교를 발휘하려고 노력했다.

5. 결론

한시에서 희작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희작은 문학적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되지 않지만 여러 이유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창작되었다. 문예적인 시보다 전고의 활용이 광범위하며 다양한 시적 장치와 표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전후 맥락이 제거된 채 문집에 수록된 희작은 어떤 정황에서 창작되었는지, 또는 시인이 어떤 점을 크게 염두에 두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희작의 경우 대체로 시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모종의 관계나 외적 상황이 시의 단어 선택이나 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후 사정이 알려지지 않은 채 텍스트만 전하는 시에서 희작적 성격은 농담이 가미되거나 다소 가벼운 어조로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 다룬 황윤석의 복성시는 창작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재난고』의 자료적 가치를 또 다른 측면에서 입증해 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당시 상황을 서술한 기록을 참고하면서 황윤석의 복성시의 특징과 그 의미를 논의하였다. 황윤석의 경우처럼 정식 혼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첩을 구할 때 구혼하는 '복성시'를 짓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은 일이다. 그런데 황윤석의 복성시 같은 경우 혼인상대자의 아버지 같이 남자친척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애정시의 범주에서 설명할 수 없다. 또 '시'를 통해 구혼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양상은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일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황윤석의 사례

를 통해 최대한 에둘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적 기교와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복성시의 범위에 넣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복성시 일반의 특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黃胤錫, 『頤齋亂藁』, 18세기, 조선후기, 卜姓, 卜姓詩, 崔處翼, 戲作

투고일(2016. 10. 17), 심사시작일(2016. 10. 26), 심사완료일(2016. 11. 8)

〈Abstract〉

A Study on the Poems for getting a concubine written by Hwang Yoonseok

Yi, Eunju *

Hwang Yoonseok is both the author of *Yijaenango* that is the massive diary and the literary person from Hungdek(in Jeolla Peovince). He entered the government service as Chambong(a official manager of royal tomb) and fulfilled his contract, finally moved to Hanyang(Seoul) and worked at Uiyenggo(royal warehouse) as bongsa(a low-ranking government official). He was from the province and lived Banchon(a national school and its environs) by himself. But housing status had taken a downward turn contrary to his expectation. He didn't receive a warm welcome by the owner of the house, so decided to get a concubine who could manage the family affairs. *Yijaenango* shows his several attempts and he even sent several poems to the father of one of them.

This is interesting because there is a general recognition that the receiver of proposal poems is a woman, but Hwang sent them to her father. His choice is very down to earth, so we may assume that these cases could more happen except him because a woman's father was literate and had effective power to determine marriage in traditional era. The second is, poets often exert their technical skill for practical purpose. Hwang also used the various poetic technique to get messages across. He was known as a man of wide reading and a retentive memory and arranged lots of authentic precedents in his poems and they were more subtle and were similar to pronunciation and similarity of the situation. In short, these sorts of his poems are distinctive unlike the typical proposal poems.

Key Words : Hwang Yoonseok, *Yijaenango*, the 18th century, the late of Joseon Dynasty, getting a concubine, the Poems for getting a concubine, Choi Cheyik, writing for amusement

* A Lecure-only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